

# 石油製品무역 현황과 특수성

## 1. 머리말

국제석유무역의 80%가 原油거래이며, 석유제품 거래는 20%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수급측면에서 볼 때, 原油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정제하는 방식이 자국의 제품수요구조에 대응한 안정적 공급이 용이하다. 코스트면에서 原油 쪽이 대형 유조선에 의해 운임 효율성을 누릴 수 있으며, 비축도 용이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품질면에서도 국내에서 정제하는 방식이 자국에 필요한 품질의 안정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예: 灯油의 유황분-日本 0.015% 이하, 인도네시아 0.20% 이하). 종래의 추세를 보면, 석유제품거래는 原油에 비해 수량, 가격 모두 변동폭이 크고, 공급 안정성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2. 石油製品무역의 현황과 가격체계

日本の 석유제품수입은 수입량에서 세계 제 2위, 수입비율로도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中東으로부터의 석유제품수입은 OECD 전체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 압도적으로 많다. EC 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中東의 수출용정유공장으로 부터 앞으로 1990년까지 100만B/D(5천만t/년)의 석유제품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日本에 대한 영향도 예측할 수 없다.

석유제품가격은 각국의 石油·에너지 수급구조, 가격 정책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각국의 가격체계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이나, 구태여 비교한다면 日本은 유럽이나 美國에 비해 상대적으로 휘발유가격이 비싸고, 중간유분과 重油의 가

격이 싸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1차석유위 기시에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민수용 灯油 가격이 억제되었으며, 나프타 가격이 기초 소재 산업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데서 비롯된다. 한편 해외 스포트 제품시장의 가

(表-1) 石油製品 수입량·수입비율의 각국 비교(1983)

(單位: 백만t, %)

	英國	프랑스	西獨	美國	日本	OECD
제품計 (백만t)	6.6	18.0	22.9	41.0	34.8	229.9
(LPG 제외)	(6.4)	(17.1)	(22.4)	(41.0)	(24.0)	(212.5)
제품計 (%)	10	23	22	6	18	16
(LPG 제외)	(10)	(22)	(22)	(7)	(14)	(16)

註: 유럽 각국에 대해서는 로테르담등(베네룩스 3국)으로부터의 수입과 美國의 경우는 카리브 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공제했다.

(表-2) 1차에너지중 輸入石油 의존도

(單位: %)

	英國	프랑스	西獨	美國	日本
① 1차 에너지 중石油의존도	39	49	44	40	61
② 석유수입의 의존도	▲68	97	95	31	99.7
③ 1차에너지중 수입석유의존도	▲26	48	42	12	61

註: ▲표시는 수출>수입

〈表-3〉 수입석유(原油+제품)의 中東·OPEC에서의 수입량 및 의존도(1983)

(單位: 백만t, %)

	英國	프랑스	西獨	美國	日本
中東으로부터의 석유수입량	8	28	14	26	134
OPEC에서의 석유수입량	13	46	43	104	153
中東의존도(%)	25	33	13	11	65
OPEC의존도(%)	41	54	39	43	74

〈資料〉 OECD 통계

〈表-4〉 中東·OPEC로부터의 수입석유(原油+제품)의 내수에 대한 비율(A)×(B)

	英國	프랑스	西獨	美國	日本
中東으로부터의 비율(%)	-	32	12	3	65
OPEC로부터의 비율(%)	-	52	37	13	74

적체제도 歐美型이며, 日本의 가격체제와는 전혀 다르다.

### 3. 세계의 석유정제·판매업 비교

#### (1) 日本

日本의 석유산업은 1차석유위기 이후 原油가격의 폭등과 거액의 환차손익 발생, 그리고 석유수요의 감퇴 등에 의해 일관하여 매우 어렵고도 불안정한 기업경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체질은 현저하게 취약해졌다.

이와 아울러 日本의 석유산업은 연간 약 3조원의 석유제세, 90일 비축부담 등 석유산업 고유의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

\*90일 비축부담: 비축코스트 연간 총액 약 2천억엔, 비축원유 1kl당 약 8천엔에 상당. 현재, 석유산업은 구조개선·집약화등 자주적인 합리화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 (2) 유럽

현재, 유럽의 석유정제·판매업은 다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유공장 폐쇄가 잇따라 발생, 절정기에 비해 정제능력이 30% 이상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조차 저하하고 있다. 국내시황이 장기간 침체해 있으며 석유회사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西獨은 1980년 이후 누계로 약 1조6천억엔의 적자, 프랑스는 1조1천억엔의 적자). 이것은 수요감퇴에 의한 것 외에도 석유제품의 수입확대가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西獨의 경우는 석유회사의 경영악화에 대해 노동조합이 석유제세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 (3) 美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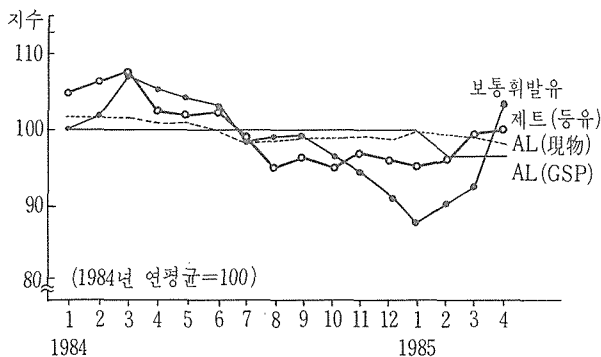
현재, 美國의 정제·판매업은 유럽과 같이 정유공장폐쇄, 가동률 저하, 시황 악화에 의해 수익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텍사코사 및 독립정제업자 연합은 이 원인이 해외로부터의 製品수

〈表-5〉 각국의 휘발유·中間溜分·잔사유의 수요 구성비(1983)

(單位: %)

	英國	프랑스	西獨	美國	日本
휘발유	38	27	25	62	19
중간유분	24	46	51	24	38
잔사유	24	18	12	9	30

〈그림-1〉 아라비안 라이트 原油가격과 로테르담 現物제품가격(지수)과의 비교



입 증대에 있다고 보고 이를 규제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 아라비아의 안부 정유공장에 합작 투자하고 있는 모빌 및 美國 석유판매업자 협회는 제품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텍사코는 OPEC의 수출용 정유공장 가동에 의해 공장폐쇄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美國의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모빌은 정유공장폐쇄가 시장원리에 의한 결과이며, 여전히 정제능력은 충분해서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4. 日本의 석유제품수입

石油製品 수입의 확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너지 공급안정에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 석유제품 무역거래는 수량, 가격 모두 原油에 비해 변동폭이 크며, ▲ 앞으로의 석유제품 수입 확대는 中東으로부터의 수입증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中東의존도가 높아지고, ▲ 국내수급 균형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日本석유제품 가격체계의 변경을 초래해 국민경제에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아울러 국내생산이 감소하여 가동률이 낮아지며, 결국은 정유공장 폐쇄를 초래, 고용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더우기 국내생산 감소 등에 의해 日本이 향수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감소를 초래할

〈表 - 6〉 1차에너지중 石油의 비율(日本)

1983	2000 (84.8 石油連盟시산)
61% (2.54억kl)	52.1% (2.76억kl)

〈表 - 7〉 日本의 石油製品 수입상황

	1980	1983	증가율
제품계(백만t)	24.6	34.8	1.4
L P G	9.7	10.9	1.1
나 프 타	5.4	9.7	1.8
중 유	5.8	8.0	1.4

〈表 - 8〉 中東으로부터의 石油製品 수입량 (1983)

	英國	프랑스	西獨	美國	日本	OECD
제품수입량(백만t)	0.3	0.7	1.2	1.1	13.4	24.2
구성비(%)	1.2	2.9	5.0	4.5	55.4	100.0

〈表 - 9〉 사우디 수출용 정유공장의 油種別 수출

(單位: %)

	주 배 일 (페르시아만)	안 부 (홍 해)	라 비 그 (홍 해)
휘발유	3.1	22.4	25.1
나프타	13.9	3.9	—
등유	16.2	12.6	10.2
경유	33.6	28.8	24.8
중유	26.5	23.4	10.0
기타	6.7	8.9	29.9
計	100.0	100.0	100.0

것이다. 무역수지면에서는 原油수입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무역 불균형 시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 5. 各국의 石油관계 규제 현황

각국 모두 石油의 중요성을 고려,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석유시장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OECD제국 중에서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등은 石油製品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美國에서도 原油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각국별 석유시장에 대한 정부관여 형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英國=긴급시 규제(민간기업에 대한 비축의무를 포함), BP에 대한 31.7% 정부출자 등. ▲프랑스=석유업법(전면적규제), 민간기업에 대한 비축의무화, CFP(35%), ELF(67%)에 대한 정부출자 ▲西獨=민간기업에 대한 비축의무화, VEBA에 대한 44%의 정부 출자. ▲美國=원유 수출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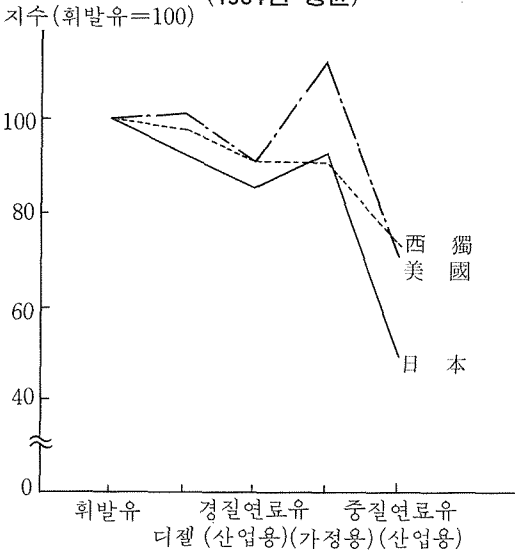
## 6. 石油의 특수성

石油은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지닌 상품이며, 다른 상품과 같이 일반적으로 논할 수 없다.

▲ 국가안전보장과 석유=石油은 국민경제와 국가안전 보장에 대해 필요 불가결한 기초물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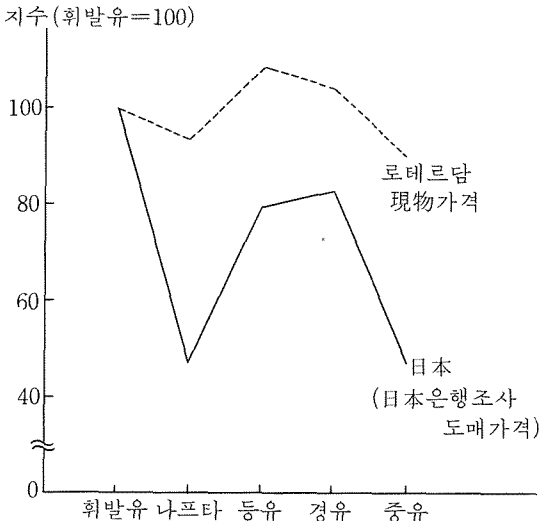
〈그림-2〉 稅後 소비자가격체계의 비교

(1984년 평균)



〈그림-3〉 로테르담 現物가격체계의와의 비교

(1984년 평균)



또한 그 전망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적 공급제약하에 있다.

▲ 상품으로서의 특수성=連產品이기 때문에 특정유종만을 생산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유종의 수입은 전체 유종의 수급을 초래하게 된다. 가정용 등유 등, 일상에 직결된 상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용 등유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대책상의 필요 때문에 가격수준을 낮게 설정하고 있으며, 산업용 원료에 대해서는 경험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코스트 회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휘발유가 유일한 수익원이 되고 있다. 휘발유·가정용 등유, 경유에 대해서는 현재 대체품이 없다. 따라서 이들 유종의 공급안정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 각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품질

〈表-10〉 日本 석유업계의 경영제비율의 추이 (33個社 평균)

(單位: %)

	매출액 경상이익률		자기자본비율	
	石油	제조업	石油	제조업
1981	▲ 1.2	3.9	4.2	25.0
1982	0.7	3.7	5.9	26.9
1983	0.9	3.9	7.7	28.2

〈表-11〉 日本 석유업계의 매출액·경상이익 추이(33個社 평균)

	1981	1982	1983	1984 (10개社 평균)
매출액(조円)	28.7	28.2	25.2	(13.8)
경상이익(억円)	▲ 3,338	1,893	2,349	( 6 )

〈表-12〉 西獨·프랑스의 정유공장 폐쇄 현황

		1980년말	1984년말	증 감
정제능력(만b/d)	西獨	297	208	▲89
	프랑스	340	229	▲111
정유공장수(개소)	西獨	33	25	▲8
	프랑스	24	17	▲7

〈表-13〉 西獨·프랑스의 석유제품 수입현황

(單位: 백만톤)

		1980	1983	증감
취발유	西獨	3.8	7.5	1.9
	프랑스	0.7	2.6	3.7
중유	西獨	4.6	9.0	2.0
	프랑스	3.4	4.2	+24%

〈表-14〉 西獨·프랑스의 정제·판매부문의 이익

(單位: 억원)

	1980	1981	1982	1983	1984 (추정)	누계
西獨	▲1,400	▲4,600	▲4,300	▲2,600	▲2,700	▲1.6
프랑스	▲1,500	▲3,300	▲3,300	▲1,400	▲1,900	▲1.1

상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경쟁에 빠지기 쉽다.

▲정부의 규제 등=石油業法, 긴급시 대책법으로서의 석유수급 적정화법 등 여러 규제가 있다. 석유회사에 대한 비축의 의무화와 약 3조원에 달하

〈表-15〉 美國의 정유공장 폐쇄현황

	1981년 1월말	1984년 12월말	증감
정제능력(만b/d)	1,860	1,580	▲ 280
정유공장수(개소)	315	206	▲ 109
중업원수(만명)	10.6	8.3	▲ 2.3

〈表-16〉 美國의 석유제품 수입현황

(單位: 천B/D)

	1981년 1~9월	1984년 1~9월	증가율
취발유	100	303	3.0
나프타	7	45	6.4
중간유분	147	244	+66%
기타제품	968	1,065	+10%

는 석유에 대한 과세 등도 지적될 수 있다.

▲기타 제약요인=공급국측의 제한-OPEC의 존재, 소비국 측에서의 제한-OECD의 존재

〈日本 순간석유정책 7/25〉



国内 唯一의 石油産業 海外弘報誌

#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85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